

효봉 스님 결사는 현대판 정혜결사 효시

보조사상연구원 21일 효봉 스님 조명 학술대회 개최... 김방룡·김용덕·김경집 교수 등 발표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1888~1966)은 '절구룡 수좌'로 불릴 만큼 수행에도 철저했다. 또, 출가 전 일제 강점기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의 판사로 활동했던 엘리트였다.

한편 앞으엔 엉덩이가 짓물러 방바닥에 눌러 붙을 만큼 철저하게 수행해 '절구룡 수좌'로 불린 스님은 목우자 지눌 스님의 가풍을 되살리려 했던 선지식이었다.

승보총장 송광사를 증창한 구산 스님과 <무소유>의 저자 범정 스님, 고은 시인 등의 스승이기도 한 효봉 스님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범산)은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제2차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효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범산 스님이 '효봉 선사의 삶과 철학'을 기조강연 하는 것을 비롯해 △ '효봉 스님의 선사상' (김방룡 총남대 교수) △ '효봉선사의 문화세계' (김용덕 한양대 교수) △ '효봉의 정혜결사와 시대적 의의'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가 발표된다.

김방룡 교수는 효봉 스님의 선사상을 간화선과 돈오점수, 정혜쌍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를 전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효봉 스님은 한평생 조주의 '무(無)자 화두'를 들었던 간화선사로 화두를 타파하고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무자 화두'를 놓치지 않았다"며 "깨침 이후에도 지속적인 뒤음이 필요한 돈오점수(頓悟漸修)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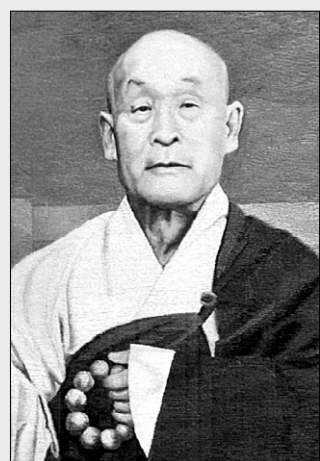
또, "화두를 들 때는 항상 성성작(惺惺作)하라고 강조했다.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해왔다"며 "효봉 스님은 간화선과 돈오점수, 간화선과 정혜쌍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김방룡 교수는 근현대 수많은 선지식 가운데 효봉 스님만큼 지눌 스님의 선종을 계승해 한국불교를 일신한 이는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목우자 선종의 회복을 통해 한국 불교계를 개혁하려는 효봉 스님의 안목과 의지는 팔목할 성장을 이룬 지금의 한국불교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용덕 교수는 효봉 스님 입적 후 발간된 <효봉법어집>을 통해 스님의 문화세계를 진단했다. 법어에 수록된 수십 여 편의 시와 오도송·열반송 등 계승, 경어, 서간 등이 효봉 스님의 문화작품 전부다.

김 교수는 "스님이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의식을 갖고 창작하지는



故 효봉 스님.

않았으나 한편 한편이 수미일관하게 완결된 시문학 형식을 갖췄다. 특히 계승으로서 온전히 한시의 격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덕 교수는 효봉 스님의 선시를 수행정진의 면려, 사사무예의 표상, 실천불교로 나누어 고찰할 예정이다. 참선 수행정진을 쉬지 않았던 스님은 법문 말미에 읊어지는 계승에서 선의 요체에 대해 운유적 상징적으로 시화하거나 부단히 수행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사사무예의 표상은 현상계 만물이 차별 그대로 상입하고 융통해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것을 시화했다. 실생활에서 삶의 지표와 수행자세, 인간 관계와 마음 자세

등 일상을 통해서 실천불교를 드러냈다.

김 교수는 스님의 선시를 기호학적 구조론으로 접근한 시선일어(詩禪一如), 육경(六境)과 육근(六根)을 시화하되 심체와 경계가 없는 상즉상입(相即相入)의 상태를 시화한 정경(情景)의 시화(詩化), "나는 본래 부처이다"라는 사상을 통한 진여(眞如)의 미학(美學)으로도 분석했다.

김경집 교수는 1935년 시작된 한암 스님과 효봉 스님의 인연에 주목해 한암 스님의 수선사(修禪社)가 효봉 스님의 정혜결사에 미친 영향을 조명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효봉 스님이 1935년 오대산으로 한암 스님을 찾아가 승가오직에 입각해 철저히 수행했다"며 "만공·한암 스님 등과 안거를 마친 효봉 스님은 송광사 삼일암에 10년간 머물면서 보조국가공과 정혜쌍수의 선종을 진작시키는 원을 세웠다"고 말했다.

일본 강점기, 일본의 식민정책에 의해 변질돼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한국불교는 효봉 스님이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세우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김경집 교수는 "효봉 스님의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은 1946년 7월 15일 하안거 해제일에 송광사 삼일원에서 정혜결사를 시작하게

했다"며 "이 결사는 근래 선지식이 종종 출현했어도 정혜가 갖춰지지 않아 안광낙지시(眼光落地時; 죽을 때에 앞길이 망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효봉 스님은 결사를 통해 3년간 율령정진 했다. 이때 제정된 정규는 수행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동구불출(洞口不出)과 오후불식(後不食), 장좌불와(長坐不臥), 묵언 등이다. 송광사 삼일암에서 시작된 효봉 스님의 정혜결사는 교단 차원으로 확대됐다.

경허의 정혜결사와 그로부터 영향 받은 한암과 만공의 결사가 있었지만 이는 조선 후기 쇠락하고 일본에 의해 변질된 한국불교를 부흥하기 위한 결사였다.

김 교수는 "한암·만공의 결사와 달리 효봉 스님의 정혜결사는 광복 후 일본 강점기에서 벗어나 한국불교 중흥을 도모했던 현대판 정혜결사의 효시"라며 "효봉 스님의 남다른 수행력이 있었기에 효봉의 정혜결사는 현대 한국불교의 시금석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 "효봉의 사상은 제자인 구산 스님에게 이어져 송광사에서 보조 지눌의 사상을 진작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02)733-5311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간화선의 세계화 비전 점검

불학연구소 제12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

간화선의 해외 지도 사례를 통해 간화선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원철)는 11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2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간화선 세계화의 전망과 <간화선> 영역의 의의'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해외에서 간화선을 지도 중인 청안 스님(헝가리 원광사 주지)을 비롯해 명상지도자인 마르틴 배첼러, 진우기 한국불교영어번역연구원장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진우기 원장은 주제발표 '간화선 관련 문헌의 영역(譯譯) 현황'에서 영역된 간화선 관련 어록(語錄)과 전등록(傳燈錄) 등을 고찰하고 종단이 진행 중인 <간화선> 영역의 의미를 재조명해 볼 예정이다.

프랑스 출신의 명상지도자 마르틴 배첼러(Martine Batchelor)는 '명상과 수행의 세계적 추세와 <간화선> 영역의 의의'를 발표한다. 배첼러 씨는 1975년 한국에서 출가해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10년간 간화선 수행을 했다. 또, <The Way of Korean Zen> 등 다수의 저술을 통해 한국선과 수행가풍을 세계에 소개해 왔다.

조동섭 기자

청안 스님이 주제발표 '한국 간화선 세계화의 현황과 비전'을 발표한 다. 청안 스님은 1994년 출가 이후 승산 스님 지도로 참선수행을 했다. 200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선원을 창건하고 유럽 각지를 순회하며 참선과 수행을 지도해 왔다. 특히 2004년에는 한국식 사찰인 원각사 건립에 착수해 불사 회향 후인 2008년부터 세계 16개국 50여 수행자와 동안거를 시작했다.

이러 27일 오후 1시 템플스테이 정보센터 3층 교육관에서는 '승가 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행사에는 前 통도사 강사 양관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화랑 스님, 고영섭 동국대 교수, 이계표 조선대 교수, 김광식 부천대 교수 등이 참석해 해인사·통도사·송광사·법어사·화엄사 승가대를 중심으로 승가교육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진단한다.

원철 스님은 "승가대 역사와 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승가대 연구를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한 기회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02)2011-1818

조동섭 기자

'법화학천태학' '일본불교사' 창간

법화학천태학연구원 · 일본불교사연구소

법화학천태학과 일본불교사 연구를 결집시킬 학술지가 각각 창간됐다. 법화학천태학연구원(회장 이영자, 02-2268-6999)는 최근 학술지 <법화학천태학연구>를 창간했다.

'법화학의 길'을 주제로 발간된 창간호에는 학담 스님(대승사 주지·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선으로 삼학을 모두 거둔다'와 지장구 동국대 교수의 '묘법연화경의' 제1권' 등 역주를 비롯해 김성구 前 이화여대 대학원장의 '십계호구의 물리학적 해석', 김호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의 '묵조선의 형성과 그 본질' 등이 게재됐다.

특히 한영(漢英) 천태용어 사전을 수록해 연구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영자 회장은 창간사에서 "불교

조동섭 기자

신행의 근본이자 불교학의 구경인 <법화경>은 지금까지 신앙적 대상으로만 인식돼 왔다"면서 "법화학천태학연구" 창간을 계기로 법화학천태의 일승원용사상을 밝히고 묘법연화의 가치를 새로이 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불교사연구소(소장 김호성, 02-2260-3123)는 11월 7일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지 <일본불교사연구> 창간식을 개최했다. 제2차 학술세미나에 앞서 열린 봉정식은 동국대 불교대학장 혜원 스님 등 200여 대승이 참석했다.

김호성 소장은 "불교학의 자생력을 실현하는 <일본불교사연구> 발간 등 일본불교사연구소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안옥선 교수 제3회 청송학술상 수상

청송장학회 "동서양 철학의 학문적 가교 세운 학자"

안옥선 순천대 교수가 제3회 청송학술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청송장학회(이사장 소광희)는 11월 7일 서울 한참회관에서 제3회 청송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안옥선 교수에게 청송학술상을 수여했다.

안 교수는 역서 <붓다, 마르쿠스 그리고 하느님>(민중사)과 <Compassion and Benevolence (慈悲와 仁)>(Peter Lang Publication Company)에서 불교와 유교, 개신교를 비교사상적 관점에서 연구했고,

<불교의 선악론>(살림) <인간과 가치>(법문사) 등을 통해서 불교적 윤리학 기초를 수립했다.

또, <여성주의 철학>(서광사)과 <공저 <그림자를 벗어나서: 참여 여성불교>(Sri Stguru Publications)를 통해 여성성의 철학적인 탐색을, <환경보존학>(신광출판사) 공저 등에서는 환경과 건강 문제를 생태사상적 관점에서 논구해 왔다.

소광희 이사장은 "안옥선 교수는 청송 선생처럼 윤리학과 사회철학 분야에서 동서양 철학의 학문적 가

교를 굳건히 세운 학자"라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청송학술상은 국내 서양철학 연구 1세대 학자로 불릴 철학 연구의 기틀을 다진 故 청송고령군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고건 前 총리가 청송장학회 설립과 함께 제정한 상이다. 조동섭 기자



안옥선 교수.

불교상담과 심리치료의 만남

진흥원, 20일 크리스토퍼 거머 교수 초청특강

'불교와 사회포럼'에서 불교상담과 심리치료의 만남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1월 20일 오후 4시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서양치료 왜 불교일까?(Why Buddhism in Western Psychotherapy?)'를 주제로 크리스토퍼 거머 하버드대 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는 불교의 마음챙김에 근거한 불안과 공황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학자

이다. 1978년부터 명상과 마음챙김 원리를 심리치료에 통합시켜온 거머 박사는 명상과 요가 탐구를 위해 10년 이상 인도를 여행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내 명상심리치료연구소(Institute for Meditation and Psychotherapy: IMP)의 평생교육원장으로 하버드 의대에서 20년 넘게 임상심리를 강의해오고 있다.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마음챙김과 심리치료)> 등을 저술했다. (02)719-2606

조동섭 기자

343일 조상천도 법회 봉행 안내

1. 조상 꿈을 많이 꾸는 분
2. 병명없이 몸이 자주 아픈 분
3. 부부간, 형제간 가정 불화가 많은 분
4. 집안에 우환 및 사고가 많은 가정
5. 사업이 부실하고 고통이 많은 분
6. 특히 건설업, 운수업을 하시는 분
7. 자손이 귀하거나 탈선하는 가정
8. 관재수나 손재수가 많은 분
9. 입시생,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
10. 관직, 승진, 선거출마 예정자 등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저희 지장선원에서는 조상천도, 호국영령, 천제지변, 각종 사고사망, 낙태태아 등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하여 343일간 7번의 49재와 천도제 구병시식 법회를 봉행하여 유주무주교혼 애혼가 열위열명영가를 극락세계 상품상생계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 우환이나 근심거리가 있으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매 49재마다 천도제 구병시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법회에 무무 동참하시어 모든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천도공덕으로 가내 두루 평안하고 영원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입재법문 : 현각 큰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입재 : 2009년 12월 1일(음 10.25) 사재 : 2010년 6월 14일(음 5.3)
초재 : 2010년 1월 18일(음 12.4) 오재 : 2010년 8월 2일(음 6.22)
이재 : 2010년 3월 8일(음 1.23) 육재 : 2010년 9월 20일(음 8.13)
삼재 : 2010년 4월 26일(음 3.13) 회향 : 2010년 11월 8일(음 10.3)

접수문의 : (031) 444-5935~6 / 1588-1936 종무소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조실 지관 / 회주 세민 / 주지 현호 / 신도회장 심정규 / 수석교문 이필상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백양사 야단법석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야단법석 일정표

	오전 8-11시	오후 2-5시	오후 7-9시
11월 21일 (첫째 날)	.	고우스님	시몽스님
11월 22일 (둘째 날)	각목스님	용타스님	용타스님
11월 23일 (셋째 날)	도법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11월 24일 (넷째 날)	시몽스님	향봉스님	향봉스님
11월 25일	도법스님	.	.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집 결 : 2009년 11월 21일(토) 낮 12시
- 입 재 : 2009년 11월 21일(토) 오후 2시 (백양사 방장 수산 큰스님 입재 법어)
- 회 향 : 11월 25일(수) 오전 11시 (4박 5일)
- 대상자 : 사부대중 누구나, 선착순 200명
- 동참비 : 출가자 - 10만원 / 재가자 - 20만원
- 접수처 : 농협 645117-51-017109 (예금주: 백양사)
- 주 최 : 고불총림 백양사
- 접수처 : 백양사 종무소
- 문의 : ☎ 061)392-7502, 전송 061)392-2081
- 동절기이므로 개인침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고 불 총 림 백 양 사